

전남 온실가스 배출 17개 시·도 중 최다

주력산업 화학·제철 등서 다량
23.6% 차지...충남·경북 순
산자부·한국에너지공단 공개

약 3억3226만3000tCO2eq.(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단위)로 집계됐다. 지역(17개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3.6%로 가장 많았고, 충남 17.5%, 경북 14.1%, 울산 12.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북, 충남은 석탄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았고, 울산은 석유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대구, 울산, 부산, 경북, 경남을 포함하는 경상권(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 전남, 전북 등 전라권은 27.0%, 충청권은 22.5%, 수도권은

14.0%, 강원권은 4.0%, 제주권은 0.1%로 집계됐다.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철, 시멘트 등 1차 금속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시행하는 에너지소비조사다. 이번 조사는 산업부문 사업체 약 10만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를 아우른다.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전

체 기준 제1차 금속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3%로 가장 컸다. 제1차 금속산업은 고로, 전기로 등의 설비를 갖추고 각종 금속 광물을 가공해 기본 또는 반제품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업종을 말한다. 제철업, 시멘트 등이 이에 속한다. 화학 19.0%, 정유 11.8%, 비금속광물 7.6%, 그 외 기타 제조업 6.9%, 전자장비제조업 6.6%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이 37.0%로 가장 많았고, 석탄류 31.8%, 석유류 20.4%, 도시가스 5.8%, 열에너지 3.2%, 기타연료 1.8% 순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음식점 원산지표시 민어 등 6개 품목 전남도, 확대 건의

전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전복, 김, 미역, 젓새우, 다시마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민어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부는 소비량과 수입량을 고려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랑어(참치), 아귀, 주꾸미를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12개 품목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의 주요 수산물 중 음식점의 주요 대상이 아닌 전복, 민어, 젓새우 등은 개정안에 빠져있다. 기존 12개 품목은 참조기, 오징어, 꽃게,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고등어, 뽕장어, 미꾸라지, 명태다.

전남 수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도 18만5000ha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완도 전복 14어가가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획득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의 수산물을 수입 산 수산물과 차별화·고급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 모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표시제 홍보·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예술제 만화일러스트 경연대회 제64회 호남예술제 만화일러스트부문 경연대회가 19일 광주 동구 조선이공대학교 시각에네이션콘텐츠포럼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연에 참가한 학생들이 주제에 맞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성악 입상자 명단 17명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호남권 설치 요청

김영록 지사, 부처 장관 면담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부처 장관들을 잇따라 만나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호남권 설치, 여수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발전 연구원 설립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김 지사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박승호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잇따라 면담하고, 시급하고 긴요한 지역 현안과 국고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5일 법무부장관 등을 잇따라 찾아 민선7기 지역 현안 해결을 논의한 바 있다.

박 장관에게는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호남권 설치 ▲병원선(전남511호) 대체선 박 건조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전남도내 의과대학 설립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농어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 보건·복지 분야 지역 현안 6건을 건의했다.

이어 진 장관에게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 섬발전 연구원 설립 ▲지방소비세 확대 및 군특사업 지방

양에 따른 대책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행정 분야 현안 5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 지사가 그동안 지 지부진한 현안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과 만나 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김 지사의 면담 이후 실무부서에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 실행 계획 수립 등의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중앙부처 장관과의 면담을 지속적으로 갖는 등 정책 현안 해결과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촌뉴딜300' 공모 준비 잔결음

전남어촌센터 관계자 등 초청
목포서 희망마을 주민 워크숍

전남도가 2020년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에 대비해 지난 17일 목포 상그리아호텔에서 공모 희망 어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사진)을 개최했다.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여항시설 정비, 어구창고, 안전시설, 공동작업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관 및 주거 개선 등에 나서 소규모 어항·어촌을 전남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복안이다.

워크숍에는 전남지역 100여개 어촌마을 주민을 비롯해 어촌관리공단, 농어촌공사,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물론 해양수산부, 시·군 관계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공모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한 어촌 주민들까지 재도전을 위해 대거 참석하면서 당초 참석 예상 인원을 넘어서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의 관계자를 초청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어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조 요청, 최근 정부 정책동향 등을 안내했다.

어촌뉴딜300은 전국 300여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이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정부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차로 추진된 공모에 선정된 전국 70개소 가운데 전남은 26개소(37%)를 차지한 바 있다. 2020년 2차 공모 사업은 전국 70개 이상이 선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공모를 시작해 오는 9월 9-10일 이를 동안 사업신청서를 접수,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12월 초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11월 말까지 평가를 거쳐 12월 초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위층 채용 부탁받고 특정한 계약직 합격 시험공고 없는 규정 적용 면접대상자 선정

광주시 산하기관 채용비리 적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와 채용 절차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9일 광주시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지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2017년 이후 신규채용과 2014년 이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14건의 행정성 조치(주의 12, 주의-개선 2)와 7명의 신분상 조치(경징계 1, 경고 4, 훈계 2)를 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의 경우 직원 A씨가 2018년 1월 단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시 광주시 고위층의 채용 부탁을 받고 특정한 채용을 관련 부서에 지시해 해당자를 최종 합격 처리하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는 또한 2018년 단기계약직 5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 사이트에 먼저 공고한 뒤에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채용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

광주환경공단과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18년 신규채용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으로 최종 면접대상자와 같은 기관(환경공단)에 근무한 면접위원을 선임하는 등 면접위원 인력풀 제도를 미흡한 것이 적발됐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2017년 신규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시험공고 등에 없는 규정을 적용해 면접대상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 광주경제교육진흥원과 광주문화재단,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등은 기간제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